

사회

80만원 휴대폰 절도 300만원 내라·경미한 추돌 250만원 요구

강도보다 무서운 '생떼 합의금'

경찰 "부당한 합의금 요구땐 법원 공탁제 활용을"

사소한 사고나 형사사건 발생시 터무니 없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상당수 젊은이들이 가벼운 피해를 당하고도 '한뼉 단단히 쟁기겠다'는 식의 그릇된 생각으로 합의조건을 제시하며 생떼를 쓰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1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초 광주의 한 은행에서 8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신고해 되찾은 김모(24)씨는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갔다 검거된 박모(47)씨에게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경찰서에서 만난 박씨에게 "합의금 300만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만원을 한꺼번에 주기도 했다. 비교적 가벼운 추돌 사고였고 보험에도 가입된 상태였지만 박씨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250만원을 주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상대편 운전자의 말을 들은 뒤 '경찰서를 오가고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 보다는 낫겠다'는 생각 끝에 곧장 인근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250만원을 건넸다.

이와 함께 은행중 심호대기 과정에서 경사로 탓에 차가 약간 굴러 앞차와 슬쩍 닿지만 해도 차량 도색비 명목으로 20~30만원을 요구하는 사례도 주변에서 손쉽게 볼 수 있다.

최근 이처럼 경미한 사건·사고 피해자가 피해규모나 피해액에 비해 지출자가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20~30대로 비교적 젊은층이며,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과 합의금에

콤바인·벼짚 절단기에 손가락 잘려

수확철 전남도내 농기계 사고 잇따라

수확철을 맞아 최근 전남 각 지역에서 농기계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50분께 화순군 청풍면 풍암리 전골마을에서 문모(65)씨가 끌던 경운기가 산길에서 전복돼 다리에 중상을 입었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2시10분께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에서 자신의 논에서 일하던 오모(68)씨가 벼짚을 자르던 절단기에 왼쪽 손목이 잘리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같은 날 오전 10시25분께 장흥군 용산면 삼금리에서는 국모(여·46)씨가 콤바인 칼날에 오른손 검지가 절단돼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또 6일 오전 10시25분께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에서 벼를 수확하던 지모(여·65)씨도 콤바인 탈곡장치에 오른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됐다.

전남 소방본부 관계자는 "농민 대다수가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바쁜 수확철에 실수나 운전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잦다"며 "작업 전과 후 항상 농기계에 이상이 있는지 점검을 하고, 음주작업을 삼가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지난달 29일 '10월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이라는 분석자료를 통해 10월은 수확철을 맞아 콤바인과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의 안전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락 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05~2009)간 연평균 387건의 농기계 안전사고 중 63건(16%)이 10월에 발생했으며 일요일(21%),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38%)에 사고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여수 스펀지 창고 불 4300만원 재산 피해

11일 오전 9시40분께 여수시 여천동의 조립식 패널로 된 스펀지 창고에서 불이나 내부 면적 99㎡와 배관 세척용 원형스펀지 등 물품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43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30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창고 뒤편 지붕에서 커튼철 철재물 용접기로 절단하던 중이었다는 이 업체 직원들의 진술에 따라 용접 불티가 스펀지로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해남 고구마 작업 60대 후진 화물차에 깔려 숨져

11일 오후 4시55분께 해남군 화산면에서 정모(여·66)씨가 고구마 운반 작업 중 박모(58)씨가 운전하던 1t 화물차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박씨는 고구마를 싣고 가기 위해 운전석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뒤에서 작업 중이던 정씨를 보지 못하고 후진했다"는 박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주사는 어른들도 아파요

독감 예방접종이 전국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11일 광주시 북구청 민방위교육장 예방접종실에서 주사를 맞은 한 노인이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최해배기자 choi@kwangju.co.kr

전파 공유나 '도둑랜'이나 무선인터넷 공동사용 논란

한 달 전 스마트폰을 구입한 김모(18·광주시 남구 진월동)군. 김군은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자신의 집에 무선인터넷 공유기를 설치해 집 곳곳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김군은 이웃들과 무선인터넷 신호를 공유하기 위해 일부러 공유기 보안설정을 하지 않았다. 김군은 앞으로도 보안설정을 하지 않고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계획이다. 자신처럼 생각하는 무선인터넷 사용자 수가 늘수록 사용자들에게 이득이라는 생각에서다.

최근 무선인터넷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사용자가 전국적으로 400만여명에 이르면서 자신이 설치한 무선 공유기 신호를 이웃과 함께 공유하려는 사용자가 늘고 있다.

무선인터넷 신호 공유는 유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사용자가 보안설정을 하지 않고 설치한 무선공유기에서 흘러나온 신호를 인접한 사용자와 함께 누리는 행위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현행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처럼 무선인터넷 신호 공유를 찬성하는 이용자들은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유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사용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선인터넷 신호를 이용하는 행위가 "남의 물건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종의 절도"라는 입장으로서 '도둑랜' 논란이 일기도 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무선인터넷 보안설정을 강제화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으나 상당수의 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한편,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국내 무선랜 이용자 수는 189만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94만2000여명이 무료로 무선랜을 사용하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 등 11명 입건

광주 남부경찰

광주남부경찰은 11일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김모(29)씨와 성매매 여성 및 성매수 남성 등 11명을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부터 광주시 서구 지평동 한 건물 오피스텔 2곳을 임대한 뒤 여종업원 3명

을 고용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하는 수법으로 50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오피스텔로 부른 뒤 시간당 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사랑해·잘자요' 휴대폰 문자는 이혼 사유"

서울가정법원

간통(姦通)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은밀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 이혼의 근거가 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영우영 판사는 김모씨가 남편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는 동시에 박씨로 하여금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와 토지 지분의 절반을 김씨에게 이전하도록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보면 그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

며 "박씨 부부의 혼인 생활은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근본 원인은 박씨의 부정행위와 폭력행사에 있으므로 이혼 사유"라고 밝혔다.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 역시 중국인 이모씨가 부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모(남)씨가 박씨에게 보낸 '사랑해', '안보이니 허전하다' 등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인정해 박씨가 이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주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나 이혼 소송 중에 박씨와 정씨가 동거한 점 등에 비춰보면 두 사람이 간통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나원침 (8140) 김종두



누리꾼에 병역면제 문의후 MC몽, 추가로 생니 뽑아

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1)이 인터넷상의 정보공유 공간으로 유명한 '네이버 지식iN'을 통해 누리꾼에게 직접 병역면제 가능성을 문의하고서 추가로 생니를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에 따르면 MC몽은 2005년 1월2일 이 사이트에 글을 올려 "어 급니 여덟 개와 작은 어급니 한 개가 없고 앞니 4개와 송곳니 한 개가 위치입니다. 5급이 맞죠. 혹시 재검을 받는데 5급을 안 주는 경우도 있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한 누리꾼이 "치아 상태가 더 좋지 않은 사람도 현재 군복무 중"이라며 부정적으로 답변하자, 병역 면제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MC몽은 이듬해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말쑥한 생니를 추가로 뽑았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불륜 추궁 상대남 차 몰고 출렁랑 입건

○ 자신의 불륜 여부를 추궁하던 상대남의 차량을 훔쳐 타고 출렁랑한 30대가 자동차 등 불법사용 혐의로 입건.

○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정모(35)씨는 지난 5일 밤 11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지평동 한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안모(36)씨의 액티언 승용차를 3km 가량 운전해 금호동 한 길거리에 버린 뒤 달아났다.

○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이날 헬스장에서 알게 돼 가깝게 지내던 한 여성의 남편인 안씨가 "내 아내와 무슨 사이냐"며 차 안에서 추궁하던 중 안씨가 전화를 받기 위해 잠시 차에서 내린 틈을 타 차를 몰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에서 "안씨가 삼자대면을 하자 길래 순간 겁이 났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대형편입 마무리**  
**실전트레이닝!**

**김영만의 탄탄한 합격시나리오 11월 1일 대개강**

수도권 편입대비 편입영어 Final Course	이공계,자연계 편입대비 편입수학 Final Course	전남대 편입대비 TEPS 100점 올리기 Project
-------------------------------	-----------------------------------	-----------------------------------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편 (062) 227-8088**